

2019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구은영	학번	
이메일	Kiosk99@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전공) University of Nottingham,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국가) 영국		
기 간	2020.1. 27 ~ 2021. 1. 29		[귀국일: 2020년 6월 1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13일
신 청 인 : _____ 구은영 (인)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노팅엄대학교는 영국 중부지방(East Midlands)에 위치한 공립종합대학으로, 소위 영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칭하는 상위권대학 연합인 '러셀 그룹(Russell Group)'에 속하는 대학교입니다. 1881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노팅엄으로 설립된 이후 1948년 왕실칙허(Royal Charter)를 받고 노팅엄대학교가 되었으며, 영국 내 사회정책 분야 5위, 전체 대학 평가 17위(The Complete University Guide 2019)이며, 세계 대학 랭킹 8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9). 영국 캠퍼스 학생 수는 약 3만 명이고, 국제학생의 비율이 약 30%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와 중국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노팅엄 대학이 위치한 노팅엄 지역은 영국의 중부지방인 Nottinghamshire에 위치한 중소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두 개 (University of Nottingham, Nottingham Trent University) 나 있어 교육도시의 느낌이 강하고 그만큼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노팅엄 대학은 중국에도 캠퍼스가 있는 대학이어서 인지 중국인 유학생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편이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드뭅니다. 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온에 비해 체감온도는 많이 낮은 편이라 방한용품을 든든하게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비가 오고 흐린 날이 겨울~초봄까지 계속 되는 편이라, 여행을 다니신다면 날씨 좋은 여름에 많이 다니셔야 할 듯 합니다. 저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이 3월초부터 시작되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고 이후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 및 원격지에서의 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6월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생활 또한 초반에 대면강의로 학교를 잠깐 다녔을 뿐 이후로는 락다운 기간 중 마트만 왔다갔다해서 그다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주거관련 사항은 아래에 따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제가 수강하였던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코스는 정책학, 행정학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수업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서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해도 봄학기에는 실시간 수업 없이 수업관련 학교사이트에 강의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파워포인트에 녹음파일만 넣어서 올려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을학기에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관련은 봄학과 동일했고 다만 실시간 세미나 수업만 과목당 매주 한시간씩 별도로 있었으며, 수업관련 질의응답시간이 과목당 매주 한시간씩 있어서 해당 시간에 들어가서 토론, 질의를 진행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메라를 꺼두고 있었고 세미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토론수업에서 혼자 교수님과 상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성적인 토론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웠고 굳이 이렇게 진행할거라면 세미나 수업은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전반적인 학교행정은 마비상태였다고 봐도 좋을만큼 요청사항에 대한 답이나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1월에 코스를 시작하여 2월에 학비를 납입 완료하였는데 9월에 학비가 또 청구되어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소소하게 문제해결할 사항이 많았는데 Student Service에 문의하면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파견가실 분들도 이쪽으로 문의하지 마시고 배정된 Personal Tutor 또는 KDI와의 제휴담당자 측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제안 (과목 수, 수업구성, 논문작성강도 등)

제가 수강한 MPA 코스의 경우 1월에 학기를 시작하여, 봄학기 70학점(credits) 수강, 여름학기 논문 작성(학교에서 권장하는 일정), 가을학기 50학점 수강, 1월말 논문 제출 후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여름학기 논문작성이 권장되나 저의 경우 6월에 급히 귀국 후 이리저리 처리할 일들이 많아 여름에는 거의 논문을 쓰지 못해서 11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가을학기에는 크레딧은 적으나 수강과목이 4개나 되어서 논문까지 병행하려니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고 빡빡했습니다.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논문은 미리미리 써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과목의 경우에는 총 7개 과목을 듣게 되며, 선택과목이 있다고는 안내되어 있지만 사실 상 선택권 없이 7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을학기에 있었던 선택과목이 폐지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팅엄대학교의 MPA 코스는 논문 60크레딧을 포함하여 총 180크레딧을 이수해야 하며, 모든 성적은 에세이 제출을 통해서만 평가됩니다. 따라서 영작이 편하신 분들은 수업이수가 훨씬 수월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교육과정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요구하는 아카데미 라이팅 포맷에 맞추어서 레퍼런싱을 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KDI에서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을 듣고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KDI에서 라이팅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따라가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 대부분의 대학이 에세이를 통해 성적을 평가하므로 영국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라이팅 수업을 미리 수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한 과목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봄학기에는 Research Methods & Research Management (20),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30), Leadership, Strategy and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20) 세 과목을 수강하였고, 각각 크레딧에 따라 20크레딧은 4000단어 에세이 1개, 30크레딧의 경우 2000단어 에세이 1개, 4000단어 에세이 1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으로 Research Methods & Research Management (20)를 제외한 두 과목의 경우는 에세이 분량이 반으로 줄어 들어서 Leadership, Strategy and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20)의 경우 2000단어 에세이 한 개,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30)의 경우는 3000단어 에세이 한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여행을 가려고 에세이를 미리 써두었다가 결국 에세이를 바뀐 기준에 맞추어 다시 쓰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학생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을학기에는 Policy Analysis: Theories and Concepts (10),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10), Managing People (10), Welfare Policy (20) 총 4과목을 들었고, 크레딧은 적으나 과목수가 많아 각각 제출해야하는 에세이 수도 많아져 짧은기간에 논문과 같이 진행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다보니 주중 저녁시간에 세미나를 매주 4시간, 수업질의시간 4시간을 참여해야하고, 강의는 강의대로 제가 알아서 찾아 듣고 에세이를 써야해서 학기중에는 매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10크레딧 과목의 경우는 2000단어 에세이를 하나 제출해야하고, 가을학기에 있었던 20크레딧의 Welfare Policy의 경우 2000단어 에세이를 두개 제출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음 학기에는 바뀔 수 있을 듯 하니, 항상 학교의 공지사항과 마감일정, 예외사항등에 대해 안내하는 이메일과 수업사이트를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모든 과제와 일정, 안내 등은 학교에서 부여해준 이메일 계정으로 안내되거나 수업사이트 (Moodle)에 공지되며, 과제를 내지 않거나 일정을 몰랐다 해도 개별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니 본인이 다 알아서 챙기셔야 불상사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입학전에 기숙사를 구하고 싶어서 학교에 문의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담당자마다 말이 틀렸고 결국 1월 입학자는 기숙사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결론 또한 정확히 공지된 것은 아니었고 메일이 안오는걸로 봐서 그렇겠거니 하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따로 플랏을 구해서 살았습니다. 저의 경우 혼자 영국에 갔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Beaston 지역에 집을 구하지 않고 비교적 교통이 좋고 상권이 발달한 시티센터쪽에 플랏을 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락다운 중에 마트 등을 이용하기는 너무 편해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랏이 비싼 편이었는데도 한달에 1000파운드 정도였으니 렌트비가 그리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비스톤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7~800파운드에 방 두개인 곳을 구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방 하나에 세탁기, 오븐, 기본 가전 및 가구 모두 구비된 Full furnished flat을 구해서 좀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시티센터에는 마땅히 학교가 가까운 곳이 없어 이 지역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Beaston 지역이 아이들 학교 보내시기에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은 사먹는게 맛이 없고 비싸서 주로 해먹게 되고, 다행히 식자재들은 다양하고 싸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안마트도 시티센터에 두곳 비스톤에도 한곳 있습니다. 웬만한 한국식품은 다 아시안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배달도 가능합니다.

노팅엄대학의 KDI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KDI 담당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노팅엄대학에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건의하여 주시면 후배분들이 파견가셔서 훨씬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020년은 저 포함 해외파견된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셨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어 사실 상 해외대학 생활이랄 것이 없는 생활을 하셨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해외에서 마주하게 되었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스스로의 일정관리,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유익한 경험을 하였을텐데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닥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의 경우 영국 Tier4-general student visa를 받게 되실 것이고 비자 발급을 위한 CAS Letter는 영국대학측에서 입학 허가 후 발급해줍니다. 영국비자 발급 또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자날 짜가 잘못되어 두번이나 더 왔다갔다 하면서 수정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다녀오시게 될 후배님들도 코로나19 상황이 한동안 이어져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 급작스럽게 변경하거나 변하는 정책이 많을 수 있으니 항상 공지 사항이나 메일은 잘 챙겨보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항상 학교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디서나 그렇겠지만 특히 해외대학에서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일정이나 필요한 부분 잘챙겨서 학업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들 의미있는 해외대학생활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